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17호 [투게 제26091호] 주체1107(2018)년 8월 5일 (일요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내달리자

### 현지말씀관철으로 고무추동하는 위력한 조직정치사업

평양도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 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의 방침을 절대적인것으로 받아들이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지난 7월 삼지연군당위원회 일군들을 불러서 부르시고 뜻깊은 기념사건을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군당위원회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 환히 밝혀주시면서 인민들이 진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와 속이아기를 터놓을수 있는 친정집, 인민들의 마음속에 뿌리박은 군당위원회가 되라고 절절히 당부하시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삼지연군당위원회 일군들에게 현지말씀을 도당의 각급 당조직들과 모든 당일군들이 강령적인 지침으로 삼고 당사업에 적극 구현하

#### 량 강 도 당 위 원 회 에 서

특히 일군들은 당의 강자농사혁명방정제시 20년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강자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도록 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에 당일군들이 앞장설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도당위원회와 예산시당위원회, 군당위원회들과 연합기업소당위원회 등에서 수많은 당일군들이 돌격대에 단련하여 앞세워 메고 뛰고 있다.

지난 기간 백두산지구 혁명적격자, 혁명사적지건설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도당의 혁명사적부대 일군들도 공사에 참가하여 한몸 단련의 하고 있다.

도당의 당,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돌격대원들에게 기공품을 과 후방물자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양양현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기세에 맞게 선전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온 도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갈바람정신이 차넘치고 새로운 비약과 혁신의 불길이 세계에 타오르게 하고 있다.

선동원들과 5호담당선전원들, 직의강연강사들을 비롯한 당초급선전일군들, 작가, 배우들은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돌격하는 전투장들에 달려가 백두대지가 들끓게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어내고 있다. 이들은 심장의 피가 끓게 하는 격동적인 선전선동으로 대중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더욱 북돋아주고 있다.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철민식 사상사업은 삼지연강자구생상공정에서도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직의강연강사들과 함께 공정에 나간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대관 구상을 실천으로 받들어 더 많은 강자구생과 여러가지 강자구생물들을 생산하여 온 나라에 보내주기 위한 투쟁으로 종업원들

### 전 력 생 산 투 쟁 에 박 차 를

#### 평안남도안의 수력발전소들에서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평안남도안의 수력발전소들에서 물관리를 잘하고 발전설비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7월 전력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특히 대동강발전소와 냉원발전소, 풍산발전소와 냉원발전소, 풍산발전소와 냉원발전소들에서 지난해 같은 때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발전설비와 구조물보수를 철저히 하고 기동보수를 다그쳐 전력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대동강발전소와 냉원발전소에서 전력생산투쟁에 박차를 가하였다.

대동강발전소 일군들은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전력생산투쟁에 박차를 가하였다. 특히 대동강발전소와 냉원발전소들에서 지난해 같은 때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력생산투쟁에 박차를 가하여 전력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대동강발전소와 냉원발전소에서 전력생산투쟁에 박차를 가하였다.

### 질 좋은 화장품생산에서 계속 혁신

#### 신의 주화장품공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신의주화장품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혁신의 불길을 세계에 지펴올리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원료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경공업공정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고 그 질을 높여 누구나 우리가 만든 제품을 쓸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생산한 제품들은 모두 인민들에게 차례지게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공장에 모시었던 그날의 감격과 영향을 가슴깊이 간직한 공장일군들은 기초화장품의 종수를 늘이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과 함께 화장품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 있다.

일군들은 정치사업부대를 돌리는 전투장들로 옮겨주어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노동자, 기술자들의 정선력을 북돋아주고 있다. 그들은 대중의 혁명적 열의에 맞게 선전선동명령과 수단들을 전투장들에 집중하고 화

### 매 일 많은 량의 세 멘 트 를 증 산

#### 고무산 세 멘 트 공 장 에 서

고무산세멘트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세멘트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이곳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매일 수십대의 세멘트를 증산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자재의 기술력량과 경제지배력을 총동원하고 증산열풍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많은 물질적재부를 창조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공장

### 3만산발파를 진행하여 올해 세멘트생산을 늘일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야

당조직에서는 세멘트증산투쟁에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화산적정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 있다.

공장당조직에서는 전투현장들에 혁명적인 구동들과 속도들을 게시하여 대중의 정선력을 총폭발시켰다.

공정일군들은 단위별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경쟁열풍을 고조시키는 한편 선진단위들의 경험을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그들은 석회석분광산을 비롯한 중요전투장들에 내려가 이신작구의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위훈장장으로 데려다주고 있다.

공정함모부에서는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생산조직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능숙하게 전개해나가고 있다.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생산조직과 설비보수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모든 단위들에서 어김없이 집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다.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질 좋은 세멘트를 더 많이 생산할수 있도록 하는 열의와 열정을 넘쳐나고 있다. 이와 함께 생산한 제품들을 세대에 생산 보장하고있으며 내부비밀적 취급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소성직장, 세멘트직장을 비롯한 다른 단위들에서는 엄격한 경제계획을 철저히 세워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생산

### 고기와 알 생산성과 확대

#### 각지 축산기지들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각지 현대적인 축산기지일군들과 종업원들이 7월 축산물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한 기세로 생산성상승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령도밑에 이미 꾸려진 현대적인 축산기지들에 하겠습시다.»

공화국정전 70년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자랑한 축산물증산성과로 빛내일 드높은 각으로 가슴 벅차우며 분발해나선 각지의 축산기지일군들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용이 큰 목표밑에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세우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농수담양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축산물생산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7월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일군들은 자기 단위 사업은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자각적으로 실천해나갔다. 그들은 자기 힘을 믿

###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할 기세로

#### 강원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강원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7월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기세로 계속 힘찬 투쟁을 벌리고 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천내리세멘트공장, 원산화학공장, 원산청년발전소와 원산영애군수지일용용공장을 비롯한 도안의 수백개 공장, 기업소들에서 강원도정신의 불길을 7월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데 이어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온갖 애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경제작전과 지위를 짜고들며 현행계획과 전망적인 단계별발전전략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그대로 완강하게 집행해나가야 합니다.»

계획수행기간 도안의 공장, 기업소당조직들에서는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투쟁을 벌리고 있다.

당조직들에서는 생산을 책임진 일군들이 이신작적으로 대중을 이끌어다가도록 적극 떠맡아 주는 한편 전투현장에서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화산적정사업을 박력있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당조직들의 지도밑에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의 일군들은 현지에서 내려가 걸린 고비를 앞보고 제때에 풀어나가도록 생산조직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해

### 원료원천을 최대한 동원하여 인민생활에 필요한 경제계획을 완수할 기세로

원료원천을 최대한 동원하여 인민생활에 필요한 경제계획을 완수할 기세로 생산하였다.

금강군을 비롯한 시, 군들의 지방공업공정들에서도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 월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도안의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이미 거둔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공화국정전 일흔이래로 년 단의 풍물나무를 세대에 생산 보장하였다.

원산영애군수지일용용공정, 송도원중형식료공장을 비롯한 도안의 경공업공정들에서는



공화국정전 70년을 높은 로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 원산구두공장에서 -





### 공화국의 기치따라 승리와 변영의 70년

# 자립경제의 위력떨치며 더 높이 비약하라, 력사의 땅이여

## 절세위인들의 령도아래 전변의 자랑찬 행로를 새겨온 평안남도를 돌아보고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립경제의 위력을 높이 떨치며 나라의 경제발전을 앞장에서 추동해온 평안남도! 나라없는 그 세월에는 한때기의 땅마저도 귀눈의 대명사로 되었던 락후한 농업도가 공화국의 자랑찬 력사와 더불어 혁명의 수도 평양을 옹위하는 위상도로, 굴지의 석탄과 전력, 기계와 건설, 화학제품생산기지

를 갖춘 공업도, 유명한 곡창지대로 전변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평안남도는 당중앙위원회가 가까이 있고 혁명의 수도 평양을 둘러싸고있는 도로서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을뿐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지역이 하나입니다.》

평안남도의 경제사업이 잘 풀려나 가야 나라가 허리를 편수 있고 평안남도의 사업이 잘되어야 나라의 전반사업이 잘될수 있다고 하시며 평안남도의 방방곡곡에 아로새기신 절세위인들의 애국헌신의 자욱자욱을 뜨겁게 더듬으며 기행길에 오른 우리의 마음은 승영하였다.

때까지 물러서지 말자고 웨치며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한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며 《평명성-3》호를 좌출권자와 같다고 그리고 뜨겁게 말씀하시것이 아니겠는가.

그 사랑에 떠남들러 온을 내는 평남의 공업기지들이다. 남포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는 주체비료가 쏟아져 나오고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새멘트가 다량생산되어 지역자장으로 흥하는 내 조국의 전전에 활력을 더해주고있다.

어제 날 천리마시대의 인간들의 후손들은 오늘날 경에 하는 최고경도자동차의 뜻을 높이 받들고 새형의 화물자동차생산에서 또다시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평남의 공업기지들이다. 남포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는 주체비료가 쏟아져 나오고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새멘트가 다량생산되어 지역자장으로 흥하는 내 조국의 전전에 활력을 더해주고있다.

### 자립의 러전우에서 용을 쓰는 공업기지들

우리의 기행길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로 들끓고있는 평남의 공업기지들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순천, 북창, 덕천, 독장, 개천, 안주... 손꼽히는 석탄, 전력, 기계, 화학, 건설생산기지들이 자리잡고있는 지구들만 보아도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차지하는 평남의 지위가 느껴지고 평안남도는 나라의 축소판과 같다는 말의 의미도 되새겨졌다.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제 39 (1950)년 10월 20일, 전선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금의 승리산이 바라보이는 곳에 차를 세우게 하시였다.

창립으로부터 발전에 이르는 전과정에 절세위인들께서 바쳐오신 로고와 심혈은 평남의 발전소들마다에도 여려 있었다.

복창화학발전련합기업소와 순천화학발전소, 평안강화학발전소, 대동강발전소와 냉원발전소, 그 하나하나를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현지에 나오시어 잡아주신 비전우에 솟아난 창조물들이었다.

이제 날 천리마시대의 인간들의 후손들은 오늘날 경에 하는 최고경도자동차의 뜻을 높이 받들고 새형의 화물자동차생산에서 또다시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창립으로부터 발전에 이르는 전과정에 절세위인들께서 바쳐오신 로고와 심혈은 평남의 발전소들마다에도 여려 있었다.

주체공업발전의 생명선을 지켜선 생산기지들을 다 돌아보지 못한 한달도 모자랄것 같은 생각을 하며 우리가 제일먼저 온 곳은 나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2, 8지역 창원탄광이었다.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도 나라의 공업발전을 위해 바쳐오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뜨겁게 전하고있었다.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제 39 (1950)년 10월 20일, 전선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금의 승리산이 바라보이는 곳에 차를 세우게 하시였다.

창립으로부터 발전에 이르는 전과정에 절세위인들께서 바쳐오신 로고와 심혈은 평남의 발전소들마다에도 여려 있었다.

복창화학발전련합기업소와 순천화학발전소, 평안강화학발전소, 대동강발전소와 냉원발전소, 그 하나하나를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현지에 나오시어 잡아주신 비전우에 솟아난 창조물들이었다.

이제 날 천리마시대의 인간들의 후손들은 오늘날 경에 하는 최고경도자동차의 뜻을 높이 받들고 새형의 화물자동차생산에서 또다시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창립으로부터 발전에 이르는 전과정에 절세위인들께서 바쳐오신 로고와 심혈은 평남의 발전소들마다에도 여려 있었다.

결제의 단전에 이르니 벨트콘베어에 질척 질척 흘러나오는 석탄이 저탄장에 쌓여있었다. 종합지형설에서 풍투어를 통하여 땅속의 탄광들을 손꼽듯 하고 석탄생산량도 실시간으로 자동측정하는 현실은 우리의 가슴을 뿌듯하게 하였다.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도 나라의 공업발전을 위해 바쳐오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뜨겁게 전하고있었다.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제 39 (1950)년 10월 20일, 전선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금의 승리산이 바라보이는 곳에 차를 세우게 하시였다.

창립으로부터 발전에 이르는 전과정에 절세위인들께서 바쳐오신 로고와 심혈은 평남의 발전소들마다에도 여려 있었다.

복창화학발전련합기업소와 순천화학발전소, 평안강화학발전소, 대동강발전소와 냉원발전소, 그 하나하나를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현지에 나오시어 잡아주신 비전우에 솟아난 창조물들이었다.

이제 날 천리마시대의 인간들의 후손들은 오늘날 경에 하는 최고경도자동차의 뜻을 높이 받들고 새형의 화물자동차생산에서 또다시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창립으로부터 발전에 이르는 전과정에 절세위인들께서 바쳐오신 로고와 심혈은 평남의 발전소들마다에도 여려 있었다.

### 구지골에서부터 원화리까지

탄광은 개발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석탄생산량이 보장되었었고 발전전달도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하던 단위를 대규모석탄생산기지로서 전변시켜주려고 결심할을 보살피고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였다.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도 나라의 공업발전을 위해 바쳐오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뜨겁게 전하고있었다.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제 39 (1950)년 10월 20일, 전선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금의 승리산이 바라보이는 곳에 차를 세우게 하시였다.

창립으로부터 발전에 이르는 전과정에 절세위인들께서 바쳐오신 로고와 심혈은 평남의 발전소들마다에도 여려 있었다.

복창화학발전련합기업소와 순천화학발전소, 평안강화학발전소, 대동강발전소와 냉원발전소, 그 하나하나를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현지에 나오시어 잡아주신 비전우에 솟아난 창조물들이었다.

이제 날 천리마시대의 인간들의 후손들은 오늘날 경에 하는 최고경도자동차의 뜻을 높이 받들고 새형의 화물자동차생산에서 또다시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창립으로부터 발전에 이르는 전과정에 절세위인들께서 바쳐오신 로고와 심혈은 평남의 발전소들마다에도 여려 있었다.

1960년대 초 인민군인들을 이곳으로 파견하시어 새 탄광들을 개발하도록 중대과제를 취해주시고 주제 57 (1968)년 9월에는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탄광에 오시어 샅샅이 살펴보신 후 대규모 탄광들을 건설할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아버지수령님, 제대군인들을 비롯한 직공들의 헌투들은 언제나 선전증장으로 당을 받들어온 참으로 충직한 로동자들과 함께 탄광에서 일하는 모든 젊은이들이 탄광을 위하여 주신 가르치심과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아래 전변의 자랑찬 행로를 새겨온 평안남도를 돌아보고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도 나라의 공업발전을 위해 바쳐오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뜨겁게 전하고있었다.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제 39 (1950)년 10월 20일, 전선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금의 승리산이 바라보이는 곳에 차를 세우게 하시였다.

창립으로부터 발전에 이르는 전과정에 절세위인들께서 바쳐오신 로고와 심혈은 평남의 발전소들마다에도 여려 있었다.

복창화학발전련합기업소와 순천화학발전소, 평안강화학발전소, 대동강발전소와 냉원발전소, 그 하나하나를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현지에 나오시어 잡아주신 비전우에 솟아난 창조물들이었다.

이제 날 천리마시대의 인간들의 후손들은 오늘날 경에 하는 최고경도자동차의 뜻을 높이 받들고 새형의 화물자동차생산에서 또다시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창립으로부터 발전에 이르는 전과정에 절세위인들께서 바쳐오신 로고와 심혈은 평남의 발전소들마다에도 여려 있었다.

2, 8지역탄광의 발전사는 평남의 모든 탄광들이 걸어온 축도 이기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며칠간이나 묵으시면서 우리 나라 석탄공업부문에서 처음으로 탄광련합기업소를 조직해주신 곳도 바로 평안남도의 덕천탄광이었다.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도 나라의 공업발전을 위해 바쳐오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뜨겁게 전하고있었다.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제 39 (1950)년 10월 20일, 전선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금의 승리산이 바라보이는 곳에 차를 세우게 하시였다.

창립으로부터 발전에 이르는 전과정에 절세위인들께서 바쳐오신 로고와 심혈은 평남의 발전소들마다에도 여려 있었다.

복창화학발전련합기업소와 순천화학발전소, 평안강화학발전소, 대동강발전소와 냉원발전소, 그 하나하나를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현지에 나오시어 잡아주신 비전우에 솟아난 창조물들이었다.

이제 날 천리마시대의 인간들의 후손들은 오늘날 경에 하는 최고경도자동차의 뜻을 높이 받들고 새형의 화물자동차생산에서 또다시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창립으로부터 발전에 이르는 전과정에 절세위인들께서 바쳐오신 로고와 심혈은 평남의 발전소들마다에도 여려 있었다.

평안남도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석탄을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자신께서 심년전 꿰어오던 막강에 들어가 탄을 캐고싶다고 절절히 말씀하시며 우리 수령님 석탄생산을 늘리기 위하여 주신 가르치심과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아래 전변의 자랑찬 행로를 새겨온 평안남도를 돌아보고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도 나라의 공업발전을 위해 바쳐오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뜨겁게 전하고있었다.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제 39 (1950)년 10월 20일, 전선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금의 승리산이 바라보이는 곳에 차를 세우게 하시였다.

창립으로부터 발전에 이르는 전과정에 절세위인들께서 바쳐오신 로고와 심혈은 평남의 발전소들마다에도 여려 있었다.

복창화학발전련합기업소와 순천화학발전소, 평안강화학발전소, 대동강발전소와 냉원발전소, 그 하나하나를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현지에 나오시어 잡아주신 비전우에 솟아난 창조물들이었다.

이제 날 천리마시대의 인간들의 후손들은 오늘날 경에 하는 최고경도자동차의 뜻을 높이 받들고 새형의 화물자동차생산에서 또다시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창립으로부터 발전에 이르는 전과정에 절세위인들께서 바쳐오신 로고와 심혈은 평남의 발전소들마다에도 여려 있었다.

고난의 행군시기 서부지역의 이름있는 탄전들에 인민군인들을 파견하시어 결행인 탄광을 뚫고 석탄생산을 늘리는데 힘써주시고 그 은정을 평남의 탄부들은 오늘날 잊지 못하고있다. 어제 탄전들만아라.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도 나라의 공업발전을 위해 바쳐오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뜨겁게 전하고있었다.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제 39 (1950)년 10월 20일, 전선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금의 승리산이 바라보이는 곳에 차를 세우게 하시였다.

창립으로부터 발전에 이르는 전과정에 절세위인들께서 바쳐오신 로고와 심혈은 평남의 발전소들마다에도 여려 있었다.

복창화학발전련합기업소와 순천화학발전소, 평안강화학발전소, 대동강발전소와 냉원발전소, 그 하나하나를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현지에 나오시어 잡아주신 비전우에 솟아난 창조물들이었다.

이제 날 천리마시대의 인간들의 후손들은 오늘날 경에 하는 최고경도자동차의 뜻을 높이 받들고 새형의 화물자동차생산에서 또다시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창립으로부터 발전에 이르는 전과정에 절세위인들께서 바쳐오신 로고와 심혈은 평남의 발전소들마다에도 여려 있었다.



글: 본사기자 김충성, 특약기자 오철훈, 사진: 본사기자 리동규

#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이틀처럼 보건사업을 책임지자

## 시인민병원을 훌륭히 일신시킨 포시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군인민병원을 해당 지역의 의료봉사거점합작 꾸리고 리민병원, 진료소들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잘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진행된 시, 군인민병원꾸리기판정총화에서는 신포시인민병원이 지방의 의료봉사단위 가운데서 가

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당의 현명인 영도밑에 보건 부문에서 주체회의 기치높이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시인민병원을 해당 지역의 의료봉사거점합작 꾸리는 사업 창조적진포시일군들의 사업정신은 당의 보건정책관행을 위한 투쟁에 우리 일군들이 어떤 관점과 림장으로 펼쳐나서야 하는가에 대한 훌륭한 대답으로 나타났다.

임일군의 노력을 했다. 《여기에 자기 집에 비가 새고 울바자가 넘어진것을 놓고 그냥 보고만 있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인민병원개건공사는 우리가 사는 집을 짓는 문제나 같습니다. 병원개건공사를 통하여 사회주의영상을 더욱 빛내야겠다는 우리들의 맹세와 실천이 달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당책임일군의 이야기는 회의참가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다.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어느 날이었다. 새로 건물이 일떠서면서 병원에서 지난 시기 리용하던 우물을 매우느냐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시당책임일군의 생각은 달랐다.

병원관리운영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있던 그는 병원일군들과의 친지한 토론끝에 우물을 그대로 리용하면서도 공사를 계획대로 내밀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를 끝내내 찾아내고야말았다.

우물을 그냥 리용하자면 기초공사부터 다시 진행해야 했다. 일부 사람들이 우물을 매우자는 의견을 제기했지만 시당책임일군의 생각은 달랐다.

병원관리운영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있던 그는 병원일군들과의 친지한 토론끝에 우물을 그대로 리용하면서도 공사를 계획대로 내밀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를 끝내내 찾아내고야말았다.

《우리 시당위원회에서 이룩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보건사업을 단호히 지도하는것이 아니라 설계하고 작전하고 책임지는 주인이 되자면 아직 난 멀었소.》

일반적인 호는 결코 일군의 본분이 아니다. 자기 지역의 보건사업을 책임진 일군이려면 용담 설계가, 작전가로서의 자질과 실천력을 갖추어야 한다는것이 시인민병원을 보건사업의 핵심으로 삼아준 리용의료봉사거점으로써 리용의료봉사단위 일군들의 정면이다.

《우리 시당위원회에서 이룩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보건사업을 단호히 지도하는것이 아니라 설계하고 작전하고 책임지는 주인이 되자면 아직 난 멀었소.》

일반적인 호는 결코 일군의 본분이 아니다. 자기 지역의 보건사업을 책임진 일군이려면 용담 설계가, 작전가로서의 자질과 실천력을 갖추어야 한다는것이 시인민병원을 보건사업의 핵심으로 삼아준 리용의료봉사거점으로써 리용의료봉사단위 일군들의 정면이다.

은 거의 명으로 되겠다는 이곳 의료일군들의 이야기 또한 우리 가슴을 조목하게 해주었다.

지금 시에서는 병원으로 들어오는 수백명에 달하는 도로와 물도량공사를 끝내는것을 비롯하여 공화국강건기념절까지 병원주변환경도 보건사업의 구에 맞게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 설계하고 작전하는 주인이 되라

모든 일에서 그러하듯이 관점과 림장은 결과를 좌우하는 선차적요인이라고 할수 있다. 신포시인민병원이 외래병동과 입원병동, 치료실들과 후생시설에 이르기까지 치료조건과 환경을 이루는 모든 요소가 외부차단, 내부격벽의 원칙에서 훌륭히 꾸려지게 된 자랑찬 성과는 시의 보건사업은 전적으로 자신들이 책임진다는 이곳 일군들의 주인의식과 헌신정신을 빼놓을 수 없다.

그도그렇듯이 시에는 국수적과 은근적, 문화회판을 비롯하여 갖 갖했거나 진행중이 있는 건설대상이 한두개가 아니였기 때문이다.

이 두가지 제안을 놓고 시당책임일군은 깊이 생각해보았다. 물론 지난 시기 시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병원개건공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그때마다 벽에 도색이나 하고 비가 새면 지붕수리나 하는 식으로 대처하다보니 입원실과 치료실 등 전반적인 병원실태는 별로 달라진것이 없었다.

시당책임일군의 가슴을 더 아픈게 찢은것은 지방병원인데 이 흠잡히지 않는가 하는 식으로 병원실태를 침중하게 여기지 않는 일부 일군들의 그릇된 관점과 태도였다.

당의 현명인 영도밑에 본보기로 될만한 보건사업들이 앞을 다투어 일떠서고 인민들에게 대한 의료봉사의 질적수준을 더욱 높이는것이 절박한 시대적요구로 나서고있을 때에 지방병원이라고 하여 언제까지나 계속 낡고 뒤떨어져있어야 하겠는가.

병원실태를 침중하게 여기지 않는 일부 일군들의 그릇된 관점과 태도였다.

당의 현명인 영도밑에 본보기로 될만한 보건사업들이 앞을 다투어 일떠서고 인민들에게 대한 의료봉사의 질적수준을 더욱 높이는것이 절박한 시대적요구로 나서고있을 때에 지방병원이라고 하여 언제까지나 계속 낡고 뒤떨어져있어야 하겠는가.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않는것이 우리 당의 계산방법이요.》

결과 보건증은 불과 20일 만에 총마치기공사까지 끝내고 자기 면모를 기본적으로 드러내게 되었다.

우선 시인민병원을 찾는 사람들을 한결같이 정갈하고 깨끗하게 꾸려진 병원을 돌아보며 찬탄을 아끼지 않고있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않는것이 우리 당의 계산방법이요.》

결과 보건증은 불과 20일 만에 총마치기공사까지 끝내고 자기 면모를 기본적으로 드러내게 되었다.

우선 시인민병원을 찾는 사람들을 한결같이 정갈하고 깨끗하게 꾸려진 병원을 돌아보며 찬탄을 아끼지 않고있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않는것이 우리 당의 계산방법이요.》

결과 보건증은 불과 20일 만에 총마치기공사까지 끝내고 자기 면모를 기본적으로 드러내게 되었다.

우선 시인민병원을 찾는 사람들을 한결같이 정갈하고 깨끗하게 꾸려진 병원을 돌아보며 찬탄을 아끼지 않고있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않는것이 우리 당의 계산방법이요.》

결과 보건증은 불과 20일 만에 총마치기공사까지 끝내고 자기 면모를 기본적으로 드러내게 되었다.

우선 시인민병원을 찾는 사람들을 한결같이 정갈하고 깨끗하게 꾸려진 병원을 돌아보며 찬탄을 아끼지 않고있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않는것이 우리 당의 계산방법이요.》

결과 보건증은 불과 20일 만에 총마치기공사까지 끝내고 자기 면모를 기본적으로 드러내게 되었다.

우선 시인민병원을 찾는 사람들을 한결같이 정갈하고 깨끗하게 꾸려진 병원을 돌아보며 찬탄을 아끼지 않고있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않는것이 우리 당의 계산방법이요.》

결과 보건증은 불과 20일 만에 총마치기공사까지 끝내고 자기 면모를 기본적으로 드러내게 되었다.

우선 시인민병원을 찾는 사람들을 한결같이 정갈하고 깨끗하게 꾸려진 병원을 돌아보며 찬탄을 아끼지 않고있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않는것이 우리 당의 계산방법이요.》

결과 보건증은 불과 20일 만에 총마치기공사까지 끝내고 자기 면모를 기본적으로 드러내게 되었다.

우선 시인민병원을 찾는 사람들을 한결같이 정갈하고 깨끗하게 꾸려진 병원을 돌아보며 찬탄을 아끼지 않고있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않는것이 우리 당의 계산방법이요.》

결과 보건증은 불과 20일 만에 총마치기공사까지 끝내고 자기 면모를 기본적으로 드러내게 되었다.

우선 시인민병원을 찾는 사람들을 한결같이 정갈하고 깨끗하게 꾸려진 병원을 돌아보며 찬탄을 아끼지 않고있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않는것이 우리 당의 계산방법이요.》

결과 보건증은 불과 20일 만에 총마치기공사까지 끝내고 자기 면모를 기본적으로 드러내게 되었다.

우선 시인민병원을 찾는 사람들을 한결같이 정갈하고 깨끗하게 꾸려진 병원을 돌아보며 찬탄을 아끼지 않고있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않는것이 우리 당의 계산방법이요.》

결과 보건증은 불과 20일 만에 총마치기공사까지 끝내고 자기 면모를 기본적으로 드러내게 되었다.

우선 시인민병원을 찾는 사람들을 한결같이 정갈하고 깨끗하게 꾸려진 병원을 돌아보며 찬탄을 아끼지 않고있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않는것이 우리 당의 계산방법이요.》

결과 보건증은 불과 20일 만에 총마치기공사까지 끝내고 자기 면모를 기본적으로 드러내게 되었다.

우선 시인민병원을 찾는 사람들을 한결같이 정갈하고 깨끗하게 꾸려진 병원을 돌아보며 찬탄을 아끼지 않고있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않는것이 우리 당의 계산방법이요.》

결과 보건증은 불과 20일 만에 총마치기공사까지 끝내고 자기 면모를 기본적으로 드러내게 되었다.

우선 시인민병원을 찾는 사람들을 한결같이 정갈하고 깨끗하게 꾸려진 병원을 돌아보며 찬탄을 아끼지 않고있다.

# 축구선수후비육성사업을 추동해갈 드높은 열의

## 제12차 전국소년학교 축구반 축구경기대회와 제8차 전국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축구반 축구경기대회를 보고

얼마전 평양에서는 제12차 전국소년학교축구반축구경기대회와 제8차 전국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축구반 축구경기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체육발전의 밝은 미래는 우수한 체육종목들의 패권적지위를 이어나가며 체육의 앞날을 떠맡고나갈 유망한 체육선수출현을 얼마나 많이 키워내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기들의 육체기술적수준을 보여주며 훌륭한 경기장면들을 펼치었다.

이번 경기대회들에서는 소학교축구반, 초급중학교축구반 학생들이 소유하고있는 기초기술수준이 지난 시기에 비해 눈에 띄게 높아지고 1대1 돌파능력과 짧은 공전력에 의한 2, 3인 협동능력, 정확한 차남기에 의한 문전결속을 비롯하여 고급중학교축구반학생들의 기초기술들을 공고히 하는데 중점을 두고 경기가 보다 속도화되고 폐인것으로 하여 이색을 띠었다.

많은 선수들이 전문가들과 애호가들로부터 전방이 기대되는 축구선수후비로 지목되었다.

소학교부문에서는 모란봉구역 민중소학교 남자선수들과 서성구역 외산소학교 여자선수들이 여러가지 기술특장들을 원만히 수행하여 단연 1등의 영예를 지니었다.

초급중학교부문에서는 중구역 동흥초중학교 남자선수들과 대동강구역 청류초중학교 여자선수들이 각각 우승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축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 관람자들의 이목을 더욱 모은것은 고급중학교축구반 남자축구경기였다.

시 축구기초기술을 마음껏 습득하여온 학생들이 승부물 거꾸는 것으로 하여 자못 치열하였다.

2개조로 나뉘어 진행된 방식으로 진행된 경기에서는 1조에서 평양시와 함경북도팀이, 2조에서 평안남도팀과 함경남도팀이 준결승경기에 진출하였다.

결승경기에는 대동강구역 청류고급중학교와 신의주시 남포고급중학교 학생들이 올라왔다.

도시(시)를 대표하여 올라온 팀들은 시, 군(구역)선발경기에서 우수한 선수를 펼친 학교선수들을 모체로 하고 여기에 도안의 다른 학교들의 우수한 선수 3명을 입입시킴으로써 이루어졌다.

7월 26일 결승경기가 진행되게 될 당최학교는 결승경기를 위해 모은 축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 관람자들로 하여 초만원이 이루어졌다.

결승경기에 진출한 학교를 본다면 신의주시 남포고급중학교는 축구기술이 높은것으로 하여 지난 시기 연속 대회를 진출하고있는 실적이 강한 팀이었다고 이들과 반면에 대동강구역 청류고급중학교는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

은 학교였다. 결승경기는 치열하였다. 신의주시 남포고급중학교 팀에서는 4-3-3체로 경기를 운영하면서 백두봉, 백두봉, 리의정학생을 기동선수로 하여 평양시와 함경북도팀을 여러차례 득점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공위성학생을 비롯하여 좋은 나이는 이러한 고급중학교 선수들은 높은 기술을 발휘하여 압도적인 선수차이로 상대팀 선수들을 이기고 결승경기에 진출하였다.

《체육발전의 밝은 미래는 우수한 체육종목들의 패권적지위를 이어나가며 체육의 앞날을 떠맡고나갈 유망한 체육선수출현을 얼마나 많이 키워내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소학교부문에서는 모란봉구역 민중소학교 남자선수들과 서성구역 외산소학교 여자선수들이 여러가지 기술특장들을 원만히 수행하여 단연 1등의 영예를 지니었다.

초급중학교부문에서는 중구역 동흥초중학교 남자선수들과 대동강구역 청류초중학교 여자선수들이 각각 우승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초급중학교부문에서는 중구역 동흥초중학교 남자선수들과 대동강구역 청류초중학교 여자선수들이 각각 우승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축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 관람자들의 이목을 더욱 모은것은 고급중학교축구반 남자축구경기였다.

시 축구기초기술을 마음껏 습득하여온 학생들이 승부물 거꾸는 것으로 하여 자못 치열하였다.

7월 26일 결승경기가 진행되게 될 당최학교는 결승경기를 위해 모은 축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 관람자들로 하여 초만원이 이루어졌다.

결승경기에 진출한 학교를 본다면 신의주시 남포고급중학교는 축구기술이 높은것으로 하여 지난 시기 연속 대회를 진출하고있는 실적이 강한 팀이었다고 이들과 반면에 대동강구역 청류고급중학교는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

《체육발전의 밝은 미래는 우수한 체육종목들의 패권적지위를 이어나가며 체육의 앞날을 떠맡고나갈 유망한 체육선수출현을 얼마나 많이 키워내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소학교부문에서는 모란봉구역 민중소학교 남자선수들과 서성구역 외산소학교 여자선수들이 여러가지 기술특장들을 원만히 수행하여 단연 1등의 영예를 지니었다.

초급중학교부문에서는 중구역 동흥초중학교 남자선수들과 대동강구역 청류초중학교 여자선수들이 각각 우승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7월 26일 결승경기가 진행되게 될 당최학교는 결승경기를 위해 모은 축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 관람자들로 하여 초만원이 이루어졌다.

결승경기에 진출한 학교를 본다면 신의주시 남포고급중학교는 축구기술이 높은것으로 하여 지난 시기 연속 대회를 진출하고있는 실적이 강한 팀이었다고 이들과 반면에 대동강구역 청류고급중학교는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

《체육발전의 밝은 미래는 우수한 체육종목들의 패권적지위를 이어나가며 체육의 앞날을 떠맡고나갈 유망한 체육선수출현을 얼마나 많이 키워내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소학교부문에서는 모란봉구역 민중소학교 남자선수들과 서성구역 외산소학교 여자선수들이 여러가지 기술특장들을 원만히 수행하여 단연 1등의 영예를 지니었다.

초급중학교부문에서는 중구역 동흥초중학교 남자선수들과 대동강구역 청류초중학교 여자선수들이 각각 우승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7월 26일 결승경기가 진행되게 될 당최학교는 결승경기를 위해 모은 축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 관람자들로 하여 초만원이 이루어졌다.

결승경기에 진출한 학교를 본다면 신의주시 남포고급중학교는 축구기술이 높은것으로 하여 지난 시기 연속 대회를 진출하고있는 실적이 강한 팀이었다고 이들과 반면에 대동강구역 청류고급중학교는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

《체육발전의 밝은 미래는 우수한 체육종목들의 패권적지위를 이어나가며 체육의 앞날을 떠맡고나갈 유망한 체육선수출현을 얼마나 많이 키워내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소학교부문에서는 모란봉구역 민중소학교 남자선수들과 서성구역 외산소학교 여자선수들이 여러가지 기술특장들을 원만히 수행하여 단연 1등의 영예를 지니었다.

초급중학교부문에서는 중구역 동흥초중학교 남자선수들과 대동강구역 청류초중학교 여자선수들이 각각 우승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류명선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적도기네 공화국, 기네공화국에 대한 방문을 마치고 4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개천잔치를 송고한 공민적 자각을 안고 선진중산으로 조국을 받들기 위해 헌신하는 한 가정이다.

유동경 제1중대장 김광남 동무와 윤반장은 일하고있는 그의 아내 그리고 제관으로 일하고있는 아들 김원일동무이다. 제대배우를 단념해 놓는다는 데로부터 지난 30여년간 김광남동무는 지하막장에 순결한 함성을 불으며 성실하게 일해

《체육발전의 밝은 미래는 우수한 체육종목들의 패권적지위를 이어나가며 체육의 앞날을 떠맡고나갈 유망한 체육선수출현을 얼마나 많이 키워내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소학교부문에서는 모란봉구역 민중소학교 남자선수들과 서성구역 외산소학교 여자선수들이 여러가지 기술특장들을 원만히 수행하여 단연 1등의 영예를 지니었다.

초급중학교부문에서는 중구역 동흥초중학교 남자선수들과 대동강구역 청류초중학교 여자선수들이 각각 우승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체육발전의 밝은 미래는 우수한 체육종목들의 패권적지위를 이어나가며 체육의 앞날을 떠맡고나갈 유망한 체육선수출현을 얼마나 많이 키워내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소학교부문에서는 모란봉구역 민중소학교 남자선수들과 서성구역 외산소학교 여자선수들이 여러가지 기술특장들을 원만히 수행하여 단연 1등의 영예를 지니었다.

초급중학교부문에서는 중구역 동흥초중학교 남자선수들과 대동강구역 청류초중학교 여자선수들이 각각 우승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